

장흥군, 세계 최대 쇼핑몰 '아마존' 입점 확대 청신호

미국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 확대협의 개최

현장홍식품 청국장·된장 아마존 입점 판매

장흥군은 지난 29일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관계자와 수출 확대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는 정중순 장흥군수

와 아마존 관계자, 전남도청 수출 담당자, 지역 업체 등이 참석했다. 수출 확대협회는 아마존 쇼핑몰 내 전라남도 브랜드관 개설 및 마

케팅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 농특산물 수출 확대 및 업체 역량 제고를 위해 장흥군에서 미국 현지 바이어를 초청해 추진하게 됐다.

현재 아마존에는 2019년 장흥군 최초로 입점한 장흥식품(대표 전정자)의 청국장, 된장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매출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흥군은 이번 수출 확대협의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소비자에게 유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와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고 있다"며,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쇼핑몰에 보다 많은 지역 업체들이 입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한국수자원공사 수도시설 합동점검 '적합'

조도면 등 10개 정수장

진도군이 수도물 '갈따구 유충' 발생 사태와 관련 조도면 등 섬 지역 포함 진도군의 모든 정수장에 대한 긴급 전수점검 결과 모두 '적합'하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물에서 '갈따구 유충'이 발견되면서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10개 정수장에 대해 긴급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정수장 등 전체 시설에서 '갈따구 유충'을 비롯한 이물질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시설 관리 사항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수지와 정수장의 일제 점검뿐 아니라 외부에서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시설별로 설치된 방충망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안전한 정수시설 환경 유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도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진도수도관리단은 지난해부터 고객에게 먼저 찾아가는 수도꼭지 수질 검사인 '수도물 안심 서비스'를 무료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 공공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지자체별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전남음악창작소에서 나만의 음반 만들어요"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 참여 관광객 대상 체험 진행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관광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전남음악창작소도 이와 함께 예술과 관광을 접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술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앞서 강진군은 지난 1월 올해를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여는 원년의 해로 정하고 관광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으로 단체 관광객이 감소하자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푸소(FU-SO)' 등 다중이용 시설이 아닌 개별 민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안전한 일상의 여행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음악창작소도 이러한 정책을 배경으로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참여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음악 체험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다.

음악을 좋아하는 관광객에게 공간을 개방해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며, 취미로 연주하던 악기를 반주에 맞추어 음반을 만드는 '나만의 음반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 거창에서 온 한 관광객은 "전남 강진에 이처럼 훌륭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놀랐고, 이러한 시설을 특정 음악인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관광객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점이 더욱 좋은 것 같다"며 "이번 여행은 강진에서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음악창작소 녹음실 이용신청은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www.fuso.kr) 사이트 또는 전남 음악창작소 홈페이지(www.ogamtong.com)를 이용해 문의하면 된다.

전남음악창작소는 이 밖에도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지역 청소년을 위한 NCS 기반 음악분야 체험 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뚝길'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직업 체험과 연계해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자녀 2명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 시행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 적용

완도군은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사용 요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완도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완도군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며, 월

7,760원(상수도 5,830원, 하수도 1,930원), 연 93,120원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완도수도관리단(☎550-8240~8242) 및 읍·면 정수장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다.

요금은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다음 달 고지분에 적용된다. 이밖에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지역 아동센터,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등)은 업종별 요율표 중 최저 단가를 적용해 감면키로 했다.

최명신 완도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규제혁신으로 완도군의 약 1,400여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교육·복지 시설 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반려동물도 코로나 블루"...해남에서 활력 충전하세요

땅끝황토나라테마촌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캠프 동행' 캠프 투어



반려견 인구가 천만시대, 하지만 반려견과 함께 여행 할만한 곳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해남군은 반려견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함께 즐기는 반려견 동행 캠프 행사를 오는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해남 땅끝 황토나

라 테마촌 캠핑장에서 개최한다. 66개팀 1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반려견 주제 간식 만들기 및 가죽 네임택 만들기 DIY 클래스가 마련되며, 인생샷 촬영 명소로 유명한 달마고도 및 천년숲길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트레킹과 사진찍기도 즐길 수 있다.

반려견 전용 비치기 운영돼 카약과 패들보드의 수상레저를 체험하고, 해남의 맑은 공기와 자연 속에 반려견과 함께하는 요가 시간도 갖는다. 현장 이벤트로 반려견과 함께 찾는 숲속 보물 찾기, 플로깅(plogging,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반려견 가족들이 최남단의 땅끝 해남에서 소중한 추억과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캠프를 계기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문화 확산에 따른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함평천지농특산물

친환경 농업의 메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